

스타트업 파크, 11월 문 연다 설계 현장 보고회 열고 향후 일정 공개



1, 2 투모로우시티 회의실에서 진행된 스타트업 파크 중간보고회

인천을 스타트업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이 오는 5월 첫 삽을 뜬다. 스타트업 파크는 11월 문을 열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월 17일 송도 투모로우시티에서 인천테크노파크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설계 현장보고회를 열고 앞으로의 일정과 구체적인 공간구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해 서병조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신성식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이 참석, 투모로우시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공간 구성,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시스템) 설계 내용과 현장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스타트업 파크는 3월 안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4월 초 입찰공고를 하고, 5월에 착공한다. 10월 완공, 11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되며 스타트업 타워 I의 경우에는 민간 운영사와의 협의를 통해

오는 7월 중 부분 개소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 타워Ⅱ동의 입주기업 모집은 3월 중 공고되며 입주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들도 3월부터 지속해서 운영된다.

또 투모로우시티의 구체적인 공간구성 계획과 관련해 투모로우시티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통해 민간이 운영할 예



2

정인 스타트업 타워 I (총면적 5천400㎡)은 코워킹 스페이스, 1인실부터 40인실까지 총 139개의 보육 시설, 37개의 회의실, 휴게 라운지, 오픈키친, 옥상정원 파티룸 등으로 구성된다.

인천테크노파크가 운영 예정인 스타트업 타워Ⅱ(총면적 8천400㎡)는 카페테리아, 실증센터(5G, 빅데이터·인공지능, 사물인터넷), 4개의 보육 시설, 44개의 회의실, 액셀러레이터(스타트업 육성기업) 사무실, 대강당, 교육실, 협업기관 사무실 등으로 구성된다.

이밖에 힐링타워(총면적 7천㎡)와 3개 타워가 지하로 연결된 편의시설(총면적 9천700㎡)에는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무인택배함 등이 마련되며 임대를 통해 편의점, 카페, 음식점, 호프집, 은행 등 스타트업 기업들의 편의시설이 유치돼 운영된다.

특히 3개 타워의 중심에 위치한 오픈광장(5천339㎡)에는 대형전광판이 설치돼 각종 회의, 문화·공연, 리빙 랩, 실증캠핑존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 스타트업 기업 간의 네트워킹 등에도 활용된다.



이원재 청장(가운데)이 투모로우시티 5층 전시시설에서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설계를 위해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벤치마킹했고 스타트업 기업, 액셀러레이터·스타트업 투자사, 스타트업 지원시설 운영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전시공간을 복층구조로 구성하는 등 시민들의 교류공간을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스타트업과 관련한 민관협업 육성모형을 성공적으로 도입, 인천 지역경제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스타트업 파크 공간 구성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미래도시 IFEZ

대한민국 4차 산업 성장의 중심에 IFEZ가 있습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반열에 오른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주요 4차 산업 기술을 통해
미래형 첨단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